

Portfolio

김 성 수

1. Artist statement

2. Critics

3. Art Works

조각가의 정원 (2024)

조각가의 아틀리에 (2023)

패신저스 (2016-2022)

연출된 디오라마 (2015-2018)

상자속의 놀이공원 (2013-2020)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2012-2013)

제자리에 (2010-2011)

4. Artist Profile

Artist Statement

김성수는 금속의 구축과 접합의 형식을 통해 상실로부터 발현된 내러티브를 형상화하며 스틸퀼팅(Steel Quilting)과 볼팅(Bolting) 기법으로 유희적 환상의 구현에 주목한다. 그는 개인의 상실된 기억을 현재와 중첩시켜 재구성한 '공존'의 서사를 기록한다. 김성수는 그의 작업세계에 영향을 준 동물, 동화, 놀이공원, 디오라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각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치, 미디어, 드로잉의 형식으로 드러낸다.

Artist Statement

Kim Sung Soo embodies a narrative emerging from loss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joining of metal, and focuses on the realization of playful fantasy through steel quilting and bolting techniques. In particular, he records a narrative of 'coexistence' reconstructed by overlapping an individual's lost memories with the present. Kim Sung Soo uses images of animals, fairy tales, amusement parks, and dioramas that have influenced his work, and presents them in the form of large-scale installations, media, and drawings, focusing on sculpture.

모뉴멘탈

권혁규(뮤지엄헤드 책임 큐레이터)

“«모뉴멘탈 Monumental»의 퀘스트는 «언모뉴멘탈 Unmonumental»과의 시간적, 물리적, 문화적 거리를 인지하며 시작된다. 전시는 그때와 지금, 그곳과 여기를 관통하는 공통의 의구심과 회의감으로부터 미세한 균열을 인지하고 문제적이며 역사적인 미술의 형식, 매체, 기념비를 다시 불러낸다. 과거를 복기하며 오늘을 고안하는 어긋난 실험들을 통해 기념비의 해체로 점철된 근과거를 다시 살피고 오늘 한국 미술의 조건과 실천을 가늠해 본다.”...중략

“김성수가 공간 앞마당에 설치한 대형 철제 조각은 과거 기마장군상과 같은 영웅적 기념비를 연상케 한다. 하지만 스테인리스와 동판을 잘라 해머로 두들겨 곡면을 만드는 단조의 과정은, 또 개별 판을 일일이 이어 붙이는 용접의 방식은 장엄하고 매끈한 위용보다는 수공의 세밀함과 고강도의 노동이 맞붙은 흔적을 드러낸다. 동물에 올라탄 인물상(들)의 형상과 서사는 작가가 직접 만든 일종의 스토리보드에 기인한다. 작가는 유년시절 그렸던 만화나 자주 읽었던 동화를 차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픽션을 구성하고 현재를 유비한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르는 기억과 경험, 상상의 조각들을 이어 붙인 작업은 거대 단일 서사에 기반한 영웅적 기념비를 우회한다.”

Monumental

Hyeok-Kyu Kwon (Museum Head Curator)

"The quest for «Monumental» begins with awareness of the temporal, physical and cultural distance from «Unmonumental». The exhibition recognizes the subtle cracks in the common doubts and skepticism that permeate then and now, there and here, and brings back problematic and historical forms, media, and monuments of art. Through the misguided experiments of reviving the past and inventing the present, we look again at the recent past, which was marked by the dismantling of monuments, and gauge the conditions and practice of Korean art today"...omitted.

The large iron sculpture installed by Seongsu Kim in the front yard of the space is reminiscent of heroic monuments such as statues of equestrian generals from the past. However, the forging process of cutting stainless steel and copper plates and hitting them with a hammer to create a curved surface, as well as the welding method of joining individual plates one by one, reveal traces of handcrafted detail and high-intensity labor rather than majestic and smooth majesty. The shape and narrative of the figure(s) riding on an animal originates from a kind of storyboard created by the artist himself. The author composes fiction and compares it to the present by borrowing from cartoons he drew in his childhood or fairy tales he often read. "The work of piecing together pieces of memory, experience, and imagination that make up one's past and present bypasses heroic monuments based on a single grand narrative."

천의 얼굴을 가진 동화 속 영웅들

백기영(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 운영부장)

“김성수의 작업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남겨둔 낙서 장, 그림일기 같은 동심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작가의 동심은 때 묻지 않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꿈과 미래를 보여준다. 낙서 장에 그려진 그림은 동화 속 주인공이거나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어른들이 만들어 주입한 동심의 영웅들의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 조지프 캠벨에 따르면, 동화는 죽음을 초극하는 무의식적이고 강박적인 공포와 망상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화적이다. 그렇다면, 이미 어른이 되어 버린 작가가 자신의 유년기에 그렸던 동물, 일러스트 북의 신화적 캐릭터들 그리고 놀이공원의 풍경이나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디오라마의 기억을 더듬어 발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성수는 그것들이 살아서 만들어 내는 스토리를 상상하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조각으로 만들어 낸다. 낙서 장에 그려진 상상 속의 영웅들은 그의 마법 같은 주술을 통해서 형체를 입고 나타났다. 이 작업은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안에 숨어 있는 인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말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 잠자고 있던 존재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난 것이다.”

Fairy tale heroes with a thousand faces

Baek Ki-young

(Director of Operation, North Seoul Museum of Art, Seoul)

"Sungsoo Kim's work began with a trip to the world of innocence, such as the scribbles and picture diaries he left behind as a child. The artist's innocence shows the untainted and pure childhood dreams and future. The drawings drawn on the graffiti sheets were influenced by the characters in fairy tales, animated cartoons, and innocence heroes created and instilled by adults before they reached adulthood. According to Joseph Campbell, fairy tales are very mythical in terms of expressing unconscious and obsessive fear and delusion that transcends death. Then, what does it mean for an artist who has already become an adult to trace and excavate memories of animals he drew in his childhood, mythical characters in illustration books, landscapes of amusement parks, and diorama that filled the space? Sungsoo Kim imagines the story they create while living and makes the characters appearing in the story into pieces. The imaginary heroes drawn on the scribbles came into shape through his magical spells. Just as Michelangelo said that he carefully took out the human body hidden in the marble, this work is the reviving of the beings that had been dormant in the imagination."

2018 전북도립미술관 청년작가 비평문 발췌

삶의 속도, 유년의 놀이를 통해 본 삶의 알레고리

고충환 (미술 평론가)

“Octagon과 Cosmos. 팔각형과 우주 혹은 팔각형의 우주. 지구의 축소판? 삶의 속도? 작가 김성수가 자신의 근작에 부친 주제다. 조각은 물성이 강해, 보기에 따라선 물성 자체가 형식이고 주제이기도 한 것이어서 따로 주제를 가정하거나 전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굳이 주제를 가정하고 전제한 것은 작가의 작업이 서사적임을 말해준다. 문학적임을 말해준다. 어떤 메시지를 특정한 것임을 말해준다. 그래서 자신의 작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조각이 되고 존재론적 조각이 되게끔 확장을 꾀하고 있는 것임을 말해준다. 서사는 이야기다. 그리고 예술에 대한 정의가 분분하지만 그 중 결정적인 경우로 치자면, 예술은 이야기의 기술일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한 이야기,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매개로 공감을 얻는다. 비록 지어낸 이야기지만 자신의 경계를 넘어 보편성을 얻는다. 비록 지어낸 이야기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건넌 이야기, 현실을 각색한 이야기란 점에서 현실성을 얻는다. 그렇게 작가의 조각엔 사회를 보는 자신의 관점과 현실을 대하는 저만의 태도가 반영돼 있다.”

2018 Jeonbuk Museum of Art Young Artist Critic

The epitome of life, the allegory of life seen through childhood play

Kho, Chung-Hwan (Art Critic)

"Octagon and Cosmos. The octagon and the universe or the octagonal universe. A microcosm of Earth? The epitome of life? This is the subject that author Kim Sung-soo applied to his recent work. Sculpture has strong physical properties, and depending on how you look at it, the physical properties themselves are both a form and a subject, so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separate subject is not assumed or premised.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subject is assumed and premised indicates that the artist's work is narrative. It says it's literary. Indicates that a certain message is specific. So, it tells us that he is trying to expand his work to become a social sculpture and an ontological sculpture. A narrative is a story. And although the definition of art is different, if we put it as a decisive case among them, art can be a storytelling technique. They gain empathy through the story they have thought of and the story they have made up. Although it is a made-up story, it gains universality beyond its own boundaries. Although it is a made-up story, it gains realism in that it is not an absurd story, but a story from reality, a story adapted from reality. In this way, the artist's sculpture reflects his own perspective on society and his own attitude towards reality."

시간경험과 시간의식, '상자속의 놀이공원'

홍경한(미술평론가)

“경험은 개인적인 감정과 감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세계와의 활발하고 민첩한 교체를 의미하며, 예술은 세계를 탐구한 결과이자 우리에게 단순히 보는 법이 아니라 본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행위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가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술이란 세계로부터 이탈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일부를 지정하는 것이고, 나를 둘러싼 세계(기억에 머물고 있는 과거든 현재로 호출된 기억이든, 지난 세계이든 오늘의 세계이든)는 미적인 것은 물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경험적인 모든 관계의 원천임을 증명한다. 김성수의 근작들은 바로 여기서 논리적 배경이 건설된다.

김성수의 '놀이공원'은 현실적인 의미의 단순한 소통의 개념보다 초월적 성격을 가진 일종의 길(路)로써 개인의 신화를 대입시키는 은유적 공간이자 추상적 형상과 기념비들을 나타내는 근원의 장소다. 그리고 그 이미지 자체인 여러 동물과 놀이기구 등은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초현실이라는 두 차원의 연결고리로서의 기능을 겸하는 훌륭한 장치가 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조각이 지닌 고정성에 탈피하여 다양한 실험적인 예술에 눈이 가 있음은 눈여겨볼 만하다.”

Time Experience and Time Consciousness, 'Amusement Park in Box'

Hong Kyung-han (art critic)

"Experience does not mean being trapped in personal emotions and senses, but means a lively and agile exchange with the world, and art is the result of exploring the world and tells us not simply how to see, but how to react to what we see and what we see through the act of seeing. It indicates whether to know. And all of this, in the end, is not a departure from the world of art, but designation of a part of the world, and the world surrounding me (whether it is the past that stays in my memory or recalled to the present, the world of the past or the world of today) is aesthetic as well as aesthetic. It proves that it is the source of all social, political and experiential relationships. The logical background of Sungsoo Kim's recent works is built right here.

Sungsoo Kim's 'amusement park' is a kind of path with a transcendent character rather than a simple concept of communication in a realistic sense. It is a metaphorical space that substitutes personal myths and a place of origin that represents abstract shapes and monuments. And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image itself, such as various animals and rides, serves as a great device that serves as a link between the two dimensions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reality and surrealism. Above all, it is noteworthy that he has an eye for various experimental arts, breaking away from the fixedness of sculpture."

조각가의 정원

2024

현실 속에 흩어져 있는 형상들의 파편을 의식세계 안으로 모아 온다. 파편들은 작가의 허구적 네러티브 안에서 자유롭게 변형된다. 작가 개인의 경험들과 상상이 뒤섞인 서사 속 세계에서, 파편들은 외부세계를 닮은 형태를 유지하거나 확대, 축소되기도 하고, 완전히 변형되거나 단순화된 형태, 혹은 해체되거나 통합된 형태로 구성되기도 한다. 입체조형 작가 김성수는 허구적 서사의 세계에 존재하는 형상을 조각을 통해 현실의 공간들로 다시 옮겨 놓는다. 금속판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두들겨대는 그의 행위는 그래서인지 소환의식처럼 보이기도 한다. 무아지경에 빠질 때도 연장의 궤적은 익숙한 감각을 따라간다. 덕분에 직관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확실한 요소들이 개입되는 과정 속에서 질서와 균형 또한 추구된다.

<조각가의 정원>은 조각들이 놓여있는 실제 정원도 아니고, 정원을 재현하기 위한 조각도 아니다. 정원의 미학은 정원사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온 자연의 생명들이 스스로 공간을 창조해 나갈 때 형성된다. 작가는 외부와 분리된 전시공간을, 외부의 자연과 분리된 영역 안에서 자연의 창조가 이뤄지는 공간, 즉 정원으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자신이 만들어 낸 서사 속 형상들을 전시장으로 옮겨와, 정원의 방식처럼, 조각이 전시공간을 창조하도록 시도한다. 즉 작가는 조각이 놓이게 될 공간을 정원처럼 바라볼 뿐, 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조각인 셈이다. 따라서 관객은, 당황스럽게도, 정원의 잘 가꾸진 식물의 형상 대신, 굵고 단단한 기둥에 달라 붙은 금속 식물의 단편을 만나게 된다. 당연하게도, 전시공간은 전혀 정원처럼 보이지 않는다. <조각가의 정원>은 생명이 정원을 창조하듯, 조각들의 조형성이 확장된 공간이다.

정원 속 식물들처럼 조각은 전시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수용한다. 이번 전시는 두 나무 fallen tree(2024), blossom tree(2024) 설치 작품을 중심으로 부조 relief 형태의 식물 파편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두 나무는 작가의 허구적 네러티브 속의 캐릭터가 조각한, 훼손된 자연의 파편들을 재구성한 형상들을 현실에 구현한 것이다. 두 나무는 분리된 형태의 흰 벽을 마치 회화의 캔버스처럼 이용하는데 이를 통해 조각은 평면적인 조형효과를 갖는다. 입체조각에서 기본적으로 하부구조에 요구되는 시각적 무게 중심이 뒷벽에 평면적으로 분산되면서 전체적인 구조는 안정된다. 사선의 형태로 확산되는 듯한 형상의 에너지도 벽 안으로 갈무리된다. 외부 공간과 열린 관계를 맺는 3차원 조각에 부여되는 이러한 정면성은, 부조의 형태로 벽면에 걸려 제시되는 파편 조각들과 함께 더욱 강조된다. 이때 관객은 조각이 놓여진 현실공간을, 마치 평면회화처럼, 분리된 내적 조형세계로 함께 인식하며 경험한다.

조형세계 속 김성수의 조각은 순수한 예술적 표현을 통한 창조를 추구한다. 작가는 서사나 자연의 재현을 최소화하면서 조각에 가하는 신체의 물리적 개입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재료의 물성을 강조한다. 작가는 서사 속 캐릭터의 형상이나 캐릭터가 놓인 상황을 연출했던 이전의 전시들에서도 서사적 내용보다는 조각과 공간이 형성하는 조형적 긴장감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조각가의 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물질과 신체의 행위라는, 조각의 창작 조건이 만나는 경계면으로서의 재료의 표면을 강조하면서, 조각의 추상성과 물질성을 함께 성취하려는 시도를 드러낸다. 집요하고 지독하게 반복적으로 표면을 때리는 작업과정은 알루미늄 금속판의 전면을 추상적 형태로 변형시키는 동시에, 재료의 밀도를 높이면서 금속의 단단한 물성을 강조한다. 이때 식물의 형상과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금속성은, 은유와 상징으로서의 해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도 조형 재료로서의 그 위치를 강화한다. 마치 현대회화의 표면에 드러나는 붓질처럼, 표면의 대비를 만들어내는 요철凹凸은 그 자체가 조형적 자율성을 갖는 동시에 힘을 가하는 신체의 지표가 되는데, 결국 표면이 변형될수록 금속재료의 물리적 특성이 더 드러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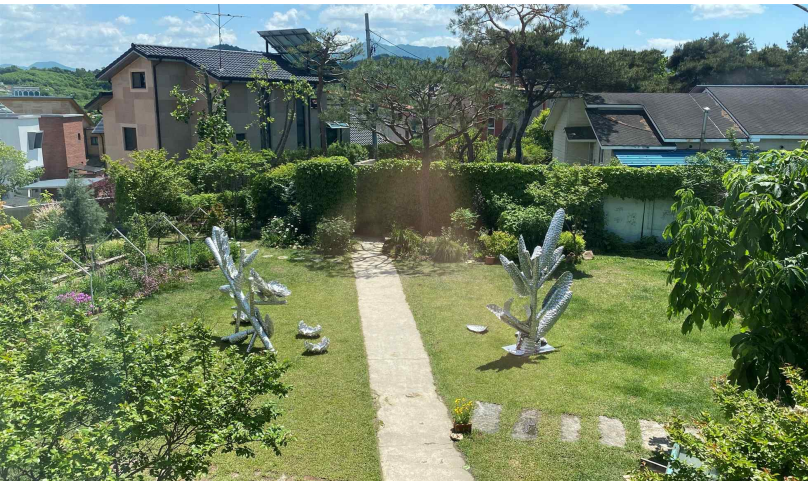
알루미늄 고유의 속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제작과정은 표면의 최종적 형태에 종속되지만, 조각의 파편들은 결합하면서 자연을 닮은 구상적 형상에 가깝게 구축된다. 그러나 조각은 부자연스럽게, 비스듬히 바닥에 쓰러지거나 떨어진 상태, 벽에 달려 있거나, 상대적으로 납작하고 좁은 금속판 위에 뿌리 없이 서있는 상태로 놓인다. 식물의 형상도 가지의 방향, 잎의 형태, 꽃의 위치가 작위적으로 뒤섞이면서 비현실적으로 구성된다. 작가는 자연을 모방하지 않고 자연으로부터 창조한다.

표면을 두들기고 모서리에 열을 가하는 동안, 파편들은 필연적으로 비의지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마치 자연의 식물들처럼, 완벽한 제어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결합하는 과정에도 즉흥적이고 비계획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입체성이 강조되는 조각 작업들을 진행하며 축적된 작가의 조형감각은 좌대 없는 조각, 뿌리 없는 식물을 최종적으로는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구성한다. 작가는 전통적인 회화와 조각에서의 '관계적 구성', 즉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 통일성을 위해서 요소들을 나누고 관계를 설정하는 구성 방식을 여전히 유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적인 재현 조각이 효과적으로 자연을 모방하고 서사를 전달하기 위해 설정하는 표면과 형상 간의 관계는 거부한다. 오히려 조각이 신체의 각인처럼 남겨진 자국들로 이루어진 표면의 덩어리들은 파편 조각의 형상들과 함께 이질적인 조형적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금속 조각은 거칠지만 섬세하고 차갑지만 서정적이며, 강인하면서 천진해 보이고, 자유로우면서도 규칙성이 느껴지는 모순된 조형적 성격을 나타낸다. 표면의 추상성과 재료의 물성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창조된 형상을 충돌시키면서, 김성수의 조각은 공간을 창조해 나간다.

김성수는 금속이라는 재료를 미적으로 탐구하고 신체의 개입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를 표현한다. 창작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만들어낸 서사의 내용들과 조형적 가치 간의 균형을 치열하게 탐색한다. 조각은 현실의 공간으로 이식하듯 옮겨지면서 작가의 경험적 세계와 조형적 세계로 구성된 서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관객은 더이상 파악되지 않는 서사의 무대 안에서, 내용이 아닌 조각 자체를 바라본다. 이때 관객의 상상을 통해 서사는 다시 시작되고 조각은 새로운 조형적 세계를 공간에 확장한다. 정원을 창조하는 자연의 생명들처럼.



Sculptor's Garden
Installation view / 2024



Sculptor's Garden
Installation view / 2024



Blossom Tree
217 x 55 x 272(h)cm aluminum 2024



Fallen Tree
230 x 90 x 220(h)cm aluminum 2024





Hanging Leaf-2

57 x 59 x 22(h)cm aluminum 2024

Fallen Leaf
50 x 33 x 9(h)cm aluminum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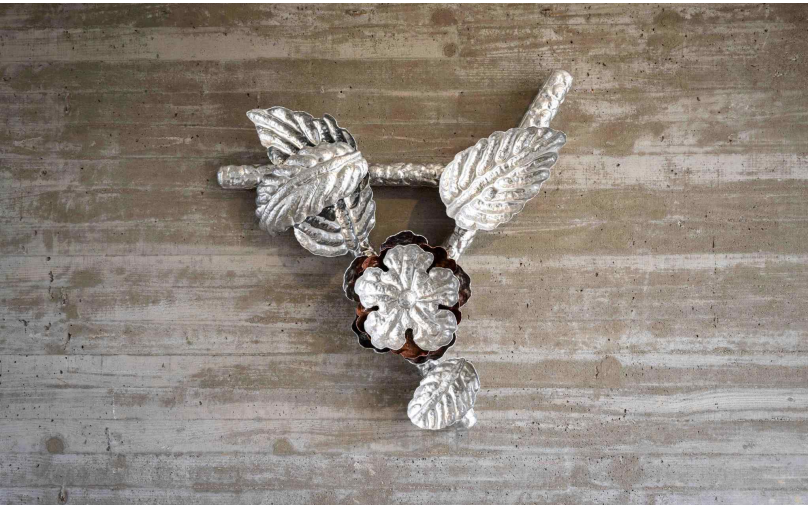


Sculptor's Garden
Installation view / 2024



Blossom Tree

217 x 55 x 272(h)cm aluminum 2024



Relief Flower-1

108 x 111 x 20(h)cm aluminum copper 2024



Floating Leaf-1

108 x 111 x 20(h)cm alminum copper 2024

Floating Leaf-3
132 x 30 x 15(h)cm aluminum copper 2024





Fallen Tree

230 x 90 x 220(h)cm aluminum 2024



Curled Leaf

40 x 50 x 14(h)cm aluminum 2024



Hanging Leaf

51 x 52 x 24(h)cm aluminum 2024



Relief Flower-2

108 x 110 x 30(h)cm aluminum copper 2024



Floating Leaf-2

134 x 30 x 12(h)cm aluminum 2024



Floating Leaf-6
139 x 40 x 16(h)cm aluminum 2024



Fluttering Flower-1
44 x 40 x 13(h)cm aluminum 2024



Fluttering Flower-2,3

37 x 32 x 11(h)cm, 44 x 40 x 13(h)cm aluminum 2024

Sculptor's Garden
24 x 32cm pen on watercolor paper 2024



조각가의 아틀리에

2023

1. 조형이 실현되는 '아틀리에(작업실)'는 창작적 사고의 거푸집으로 존재하며 조형적 구상의 틀을 제공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폐쇄적으로 변한 환경과 창작 공간을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에 맞닥뜨린 조각가의 일상을 가상의 등장인물 '랫캣(Rat-Cat)'의 서사와 동일선상에 교차시켜 소유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욕망과 '부유하는 섬'처럼 떠도는 창작자의 고립된 심상을 조명했다.

2. 부동성이 특화된 '조각'이란 장르에서 '운동성'과 '연극성'의 접목을 시도했던 전작 <탑승자들 : 움직이는 장> (2022)과 연계되는 작업으로 조각가의 작업실에서 발생하는 창작자와 피조물 사이에서의 가변적 서사의 생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한편 가상의 인물 '랫캣(Rat-Cat)'의 힘을 빌려 형상의 원형(原形)을 찾아가는 과정을 입체와 소리 그리고 영상을 통해 연출했다.

1. The space called 'Atelier', where modeling is realized, exists as a mold for creative thinking to sculptors and provides a framework for formative conception. The reality that has become closed due to the pandemic and the inconvenient reality of constantly moving between spaces intersect with the narrative of the virtual character 'Rat-Cat' to create a space that cannot be owned. Illuminated the desire for love and the isolated image of the creator who wanders like a 'floating island'.

2. In the genre of 'sculpture', which is specialized in immobility, this work is linked to his previous work, <Passengers: Moving Scene> (2022), which attempted to combine 'movement' and 'theatrica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ator and the creature that occurs in the sculptor's studio. I tried to focus on the creation of a variable narrative. On the other hand, borrowing the power of the imaginary character 'Rat-Cat', the process of finding the original shape was directed through three-dimensional, sound, and video.



Sculptor's Atelier
Installation view / 2023



Sculptor's Atelier
Installation view / 2023

Rat-Cat's Anvil

82 x 56 x 99cm / alumin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3





Rat-Cat's Anvil

82 x 56 x 99cm / alumin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3



Dummy : Scene Stealer

235 x 100 x 25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3



Dummy : Scene Stealer

235 x 100 x 25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3



Earth-Quilt

240 x 240 x 97cm / aluminum, stainless steel / 2023



Earth-Quilt

240 x 240 x 97cm / aluminum, stainless steel / 2023

Earth-Quilt

240 x 240 x 97cm / aluminum, stainless steel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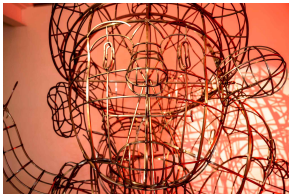
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shorts/7xSD7Q1R6MU?feature=share>



4 F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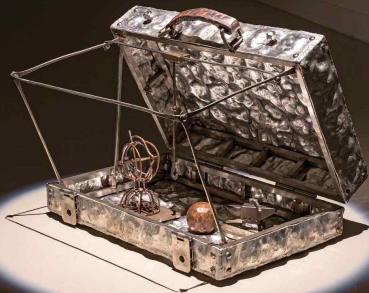
178 x 170 x 230cm / stainless steel / 2023-2026



4 Faces

178 x 170 x 230cm / stainless steel / 2023-2026





Atelier in Briefcase

41 x 14 x 33cm / stainless steel, aluminum, copper / 2023



Rat-Cat's Studio
55 x 73cm / neon / 2023



Rat-Cat's Table

102 x 124 x 138cm / stainless steel, aluminum, mixed media / 2023



Rat-Cat's Table

102 x 124 x 138cm / stainless steel, aluminum, mixed media / 2023

패신저스_움직이는 장

2022

Passengers_Moving Scene은 '외부의 침략과 폭격으로 부터 달아나는 군중들의 모습'을 그림자극의 형태로 풀어낸 전시이다. 앞을 향해 달리는 인간의 행위는 안전과 생존을 위한 신체의 움직임이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처절한 몸의 의지를 반영한다. 작품의 운동성을 부여하기 위해 관람자가 움직일 수 있는 관절 형태의 조합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림자의 요소를 통해 극적 장면을 연출하는 조각의 연극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Passengers_Moving Scene 2022

Passengers_Moving ScenePassengers_Moving Scene is an exhibition that unravels 'the appearance of crowds fleeing from outside aggression and bombing' in the form of a shadow play. The human act of running forward is a movement of the body for safety and survival, and it reflects the desperate will of the body of modern people living a busy daily life. In order to give the work mobility, it was produced with a combination of joints that viewers can move, and the theatricality of the sculpture, which creates a dramatic scene, was intended to be revealed through the ever-changing elements of light and shadow.



Passengers_Moving Scene
Installation view / 2022



Passengers_Moving Scene
Installation view / 2022



Running Mates

106 x 123 x 18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Running Mates

106 x 123 x 18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Running Mates

106 x 123 x 18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Running Mates_shadow

106 x 123 x 18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Running Mates_shadow

106 x 123 x 18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Policeman vs Wolf rider
Installation view / 2022

Wolfrider

50 x 32 x 124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Wolfrider

50 x 32 x 124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Policeman

46 x 36 x 13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Policeman

46 x 36 x 139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Climbing Hand
43 x 30 x 86cm / aluminium / 2022





Climbing Hand

43 x 30 x 86cm / aluminium / 2022



Shall we get some coffee?

58 x 38 x 110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Shall we get some coffee?

58 x 38 x 110cm / aluminium, stainless steel, copper / 2022

패신저스_폴리스맨 vs 울프라이더

2021

패신저스_폴리스맨 vs 울프라이더 2021

Policeman

민중의 지팡이이자 질서, 규율을 강조하며 시민들을 위험한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적인 판단과 통찰로 위기로 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때론 공권력의 권한을 과용하여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폴리스맨은 무기가 지닌 절대권력, 공권력을 앞세워 욕심을 드러내는 이중성 등 힘을 가진 권력자의 단면을 보여주는 역할로 존재한다. 울프라이더의 직관력에 의한 판단을 무시하고 타당한 근거와 논리적인 어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한다.

Wolfrider

법과 규율에 얽매이지 않은 존재로서 꿈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을 좋아하며 직관과 영에 의한 판단을 중시한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 규율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혁명가이자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주의자로 시위에 나선다. 정의라 규정된 모든 것들에 의구심을 가지며 틀에 갇힌 사람들의 눈을 깨워주는 선각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도를 지키려는 공권력과의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다. 울프라이더는 인간, 자연, 휴머니즘, 환경주의를 포괄하고 있는 상징이자 인디언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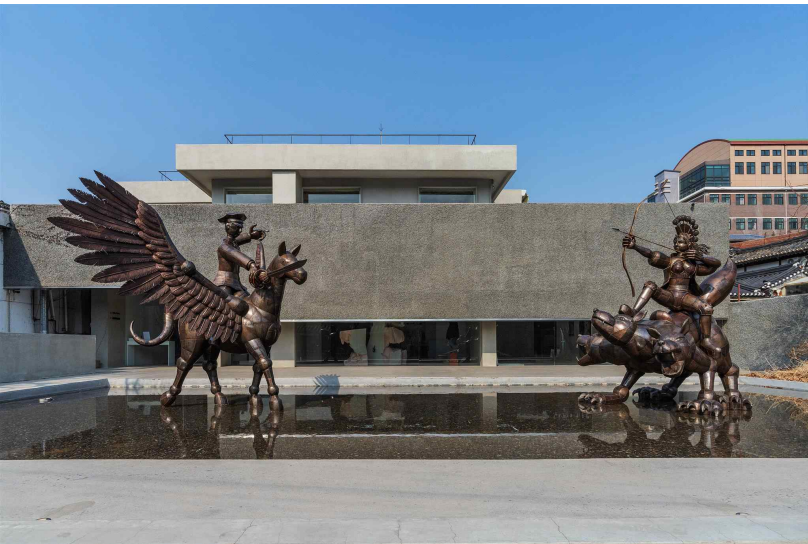
Passengers_Policeman vs Wolfrider 2021

Policeman

It is the cane of the people, emphasizing order and discipline, and playing a role in protecting citizens from dangerous elements. Although it protects people from crises with rational judgment and insight, it sometimes becomes the center of controversy by overusing the authority of public power. The policeman exists as a role that shows the cross-section of a person with power, such as the absolute power of weapons and the duality of revealing greed through public power. Ignoring the judgment based on Wolfrider's intuition, he persuades people with valid grounds and logical language.

Wolfrider

As a being who is not bound by laws and regulations, he likes to foresee his future through dreams, and values intuition and judgment based on the spirit. He protests as a revolutionary who doubts and rejects the system and rules created by society and as an environmentalist who loves nature. It plays the role of a pioneer who has doubts about everything defined as justice and awakens the eyes of those who are trapped in a frame. Because of this, it sometimes sets up an angle of confrontation with the public power that is trying to protect the system. Wolfrider is a symbol that encompasses humans, nature, humanism, and environmentalism, and is a character created from the naturalistic worldview of Indians.



Policeman vs Wolfrider
Museum Head Installation view / 2023



Policeman vs Wolfriider
Museum Head Installation view / 2023



Policeman vs Wolfrider
Museum Head Installation view / 2023



Policeman vs Wolfrider

Palbok Art Factory Installation view / 2021



Policeman

40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Policeman

40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Policeman - detail

40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Policeman - shadow
40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Wolf rider

25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Wolfrider - detail

25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Wolfrider - shadow

25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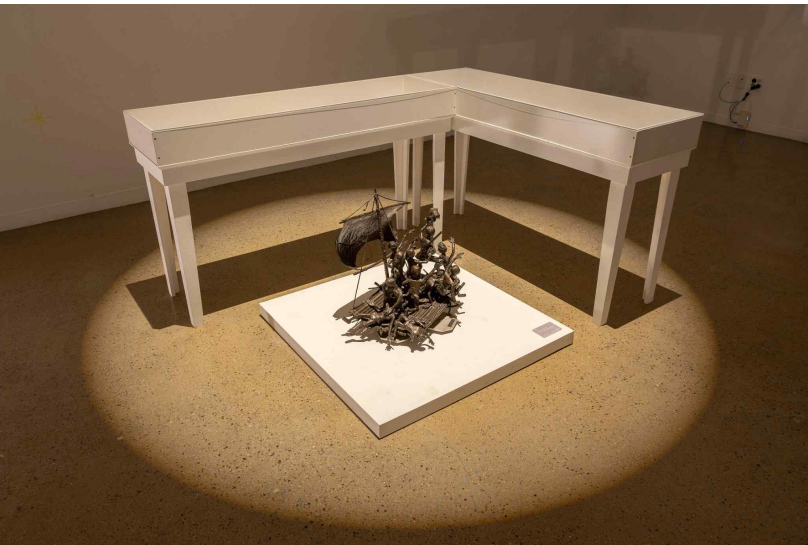
Wolfrider - shadow
25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Storyboard – Passengers

Installation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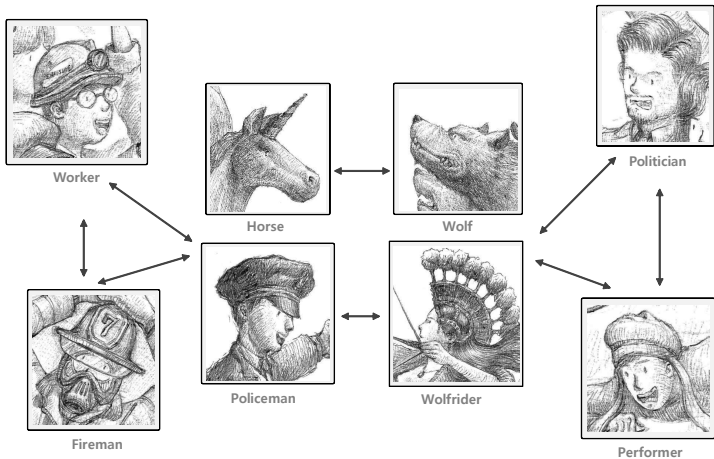


Storyboard – Passengers

Installation / 2017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In 'Policeman vs Wolfrider'





Passengers

Palbok Art Factory Installation view / 2021



Policeman vs Wolf rider
Nu-e Art Hall Installation view / 2021



Policeman

40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Wolf rider

250 x 300 x 28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1

패시저스_갱스터 & 플로리스트

2020

Florist

하루하루 성실히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 주말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는 상냥함을 지니고 있다. 돌아가신 할머니로부터 받은 따뜻한 사랑을 주변에 나누고자 하는 인류애가 묻어나는 인물이다.

Gangster

브루클린 출신으로 거리에서 살아온 인생이 얼굴과 행동에 드러난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하여 경찰의 표적이 되지만 자신이 이끄는 패밀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과감함이 있다. 갱스터는 인간이 만든 사회와 규율의 빈틈을 노리며 인간이 만든 제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존재한다.

Florist

An ordinary woman who diligently runs a small flower shop day by day. He has the kindness to walk his dog every weekend and greet his neighbors. He is a person who is full of love for humanity who wants to share the warm love he received from his grandmother who passed away.

Gangster

A Brooklyn native, his life on the streets shows in his face and actions. He accumulates wealth through illegal activities and becomes a target for the police, but he has the courage to risk his life for the family he leads. Gangsters exist as a symbol of the imperfection of man-made systems, aiming for gaps in man-made society and discipline.



Gangster & Florist - front
250 x 130 x 21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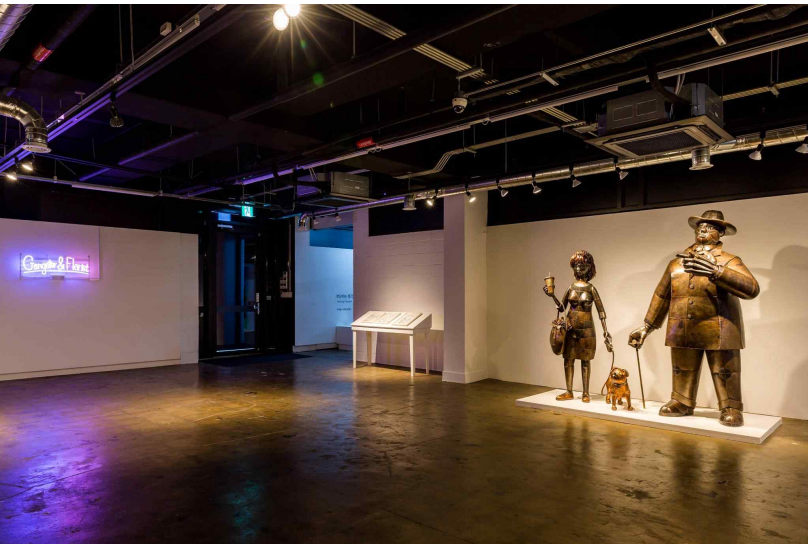


Gangster & Florist - back
250 x 130 x 21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Sunday

45 x 25 x 4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Gangster & Florist
Installation Veiv / 2020



Gangster & Florist

250 x 130 x 21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Gang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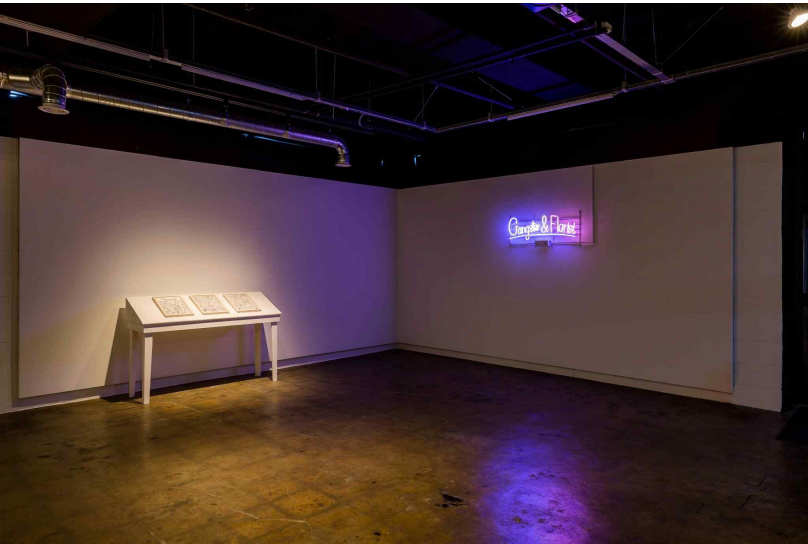
110 x 80 x 20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Florist

100 x 50 x 17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20



Gangster & Florist
Installation Veiv / 2020



Gangster & Flo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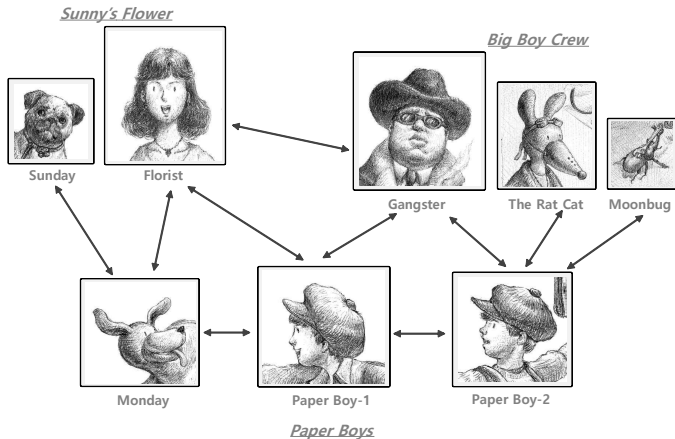
Gangster & Florist
100 x 45cm / Neon sign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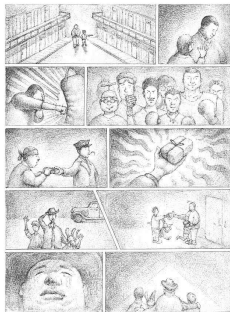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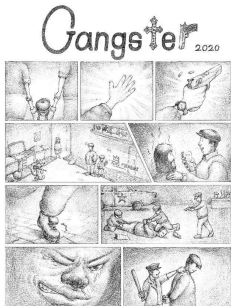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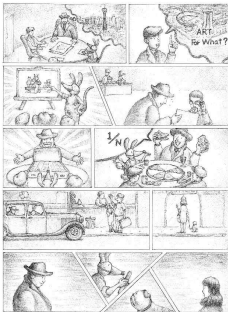


Storyboard - Gangster
Installation Veiv / 2020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s

In 'Gangster & Flo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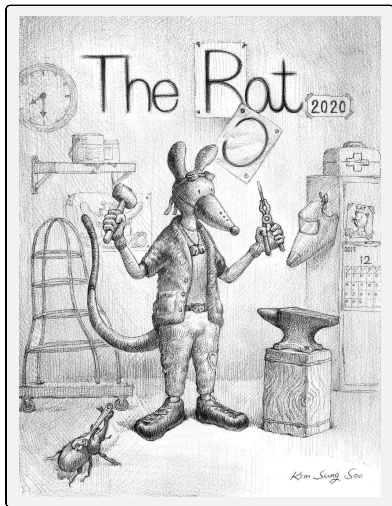


Florist 2020



Gangster & Florist





The Rat Cat
Pen on Paper / 2020

패신저스_Chapter-1

2017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뗏목위에 몸을 맡긴 채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 그 뗏목이라는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그 시스템의 막연한 믿음은 우리를 오히려 불안에 대한 감지를 무더지게 하며 무감각해지게 만든다. 각자의 역할은 정해져 있지만 급박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의 초라한 인간이 되어 버리는 현실 속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패러다임, 시스템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스템의 불능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막연하게 구명조끼 하나를 몸에 걸칠 뿐이다. 붕괴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가진 미약하지만 강인한 인간의 모습을 담아보려 한다.

We live a day today as we leave our bodies on the raft, not knowing where it will flow. The system called the raft exists, but the vague belief in the system rather dulls our sense of anxiety and makes us insensitive. Each role is fixed, but in an urgent moment, I thought that the paradigm and system that surrounds us may not be as perfect as we thought. Knowing that the inability of the system is directly related to our lives, we vaguely put on one life jacket. I try to capture the image of a weak but strong human being with the will to survive in a collapsed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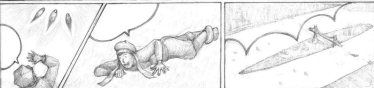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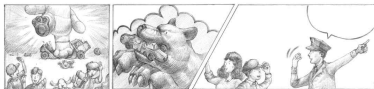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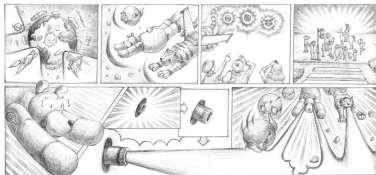


Survivors of The Raft of Medusa
pen on paper / 250 x 250mm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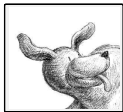
The Passengers.

Chapter-1

2017 KIP SUNG 600



Characters In *'Passengers'*



Monday



Sunday



Florist



Gangster



The Rat Cat



Moonbug



Horse



Policeman



Paper Boy-1



Wolfrider



Wolf



Fireman



Worker



Paper Boy-2



Performer



Politician



Policeman

pen on watercolor paper / 36 x 51cm / 2017



Wolf Rider

pen on watercolor paper / 36 x 51cm / 2017



Florist

pen on watercolor paper / 24 x 32cm / 2017



Gangster

pen on watercolor paper / 24 x 32cm / 2017



Paper Boys

pen on watercolor paper / 36 x 51cm / 2017

연출된 디오라마

2015-2018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부유하는 금속대륙을 표현하였다. 다양한 종족과 인간군상들이 모여있는 우주 속의 작은 행성 팔각대륙 Octagon은 치열한 삶의 각축장이며 동시에 대축제의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부터의 위협과 이념과의 전쟁을 벌이는 현대인의 모습은 팔각대륙 위에서 춤을 추는 혹은 몸부림치는 형상과 몹시 닮아있다. 인원이 제한된 뗏목과 화산섬을 기어오르기 위한 앞을 향한 시선은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긴박함을 느끼게 해준다. 팔각대륙으로부터 몇 걸음 뒤로 팔각대륙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대한 Cosmos가 작품을 360° 감싼다. 별자리와 수많은 행성으로 이루어진 반짝임으로 채워진 우주 공간은 삶의 치열함 속 수많은 감정을 반짝임으로 환원시키며 하나의 모습으로 묶어준다. 작품 주변을 감싼 지름 8미터 360도 원형 스크린은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내고 있다. 연속되는 영상을 통해 관람객이 찰나의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작품의 안과 밖 모두를 다각도로 관람할 수 있으며,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작품을 통해 또 다른 우주를 경험하게 된다.

Directed Diorama 2015-2018

It expresses a floating metal continent in the vast outer space. Octagon, a small planet in the universe where various races and human groups are gathered, can be interpreted as an arena for intense competition in life and a space for grand festivals at the same time. The appearance of modern people waging a war against threats and ideologies from invisible objects is very similar to the figures dancing or struggling on the Octagonal Continent. The raft with limited number of people and the forward gaze to climb the volcanic island make you feel the urgency of not being able to look around. A huge Cosmos, which allows a more macroscopic view of the Octagonal Continent a few steps back from the Octagonal Continent, surrounds the work 360°. The outer space filled with sparkles made up of constellations and numerous planets reduces countless emotions in the fierceness of life to sparkles and binds them together. A 360-degree circular screen with a diameter of 8 meters surrounding the work creates a huge universe. It is configured in the form of an experience space so that the audience can focus on the moment through a series of videos. You can view both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work from multiple angles, and experience another universe through the work that mixes reality and virtuality.



The Octagon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2500 x 2500 x 1700mm / 2015



The Octagon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2500 x 2500 x 1700mm / 2015



The Animals
Installation view



The Humans
Installa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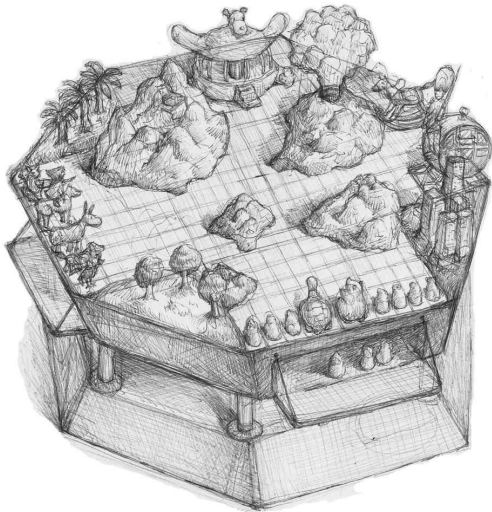


The Fairy tales
Installa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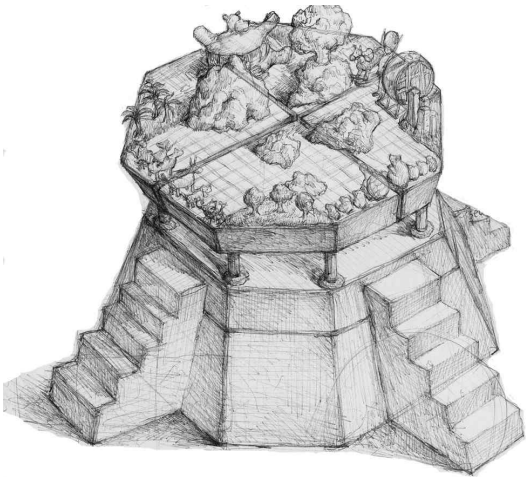
The Octagon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2500 x 2500 x 1700mm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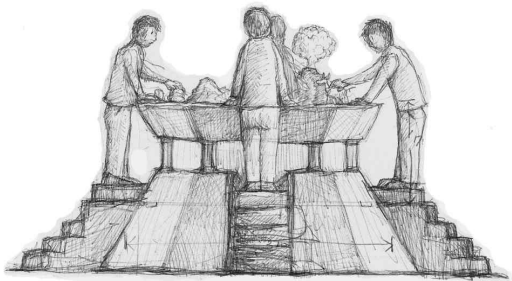
The Octagon – 팔각대륙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4500 x 4500 x 1700mm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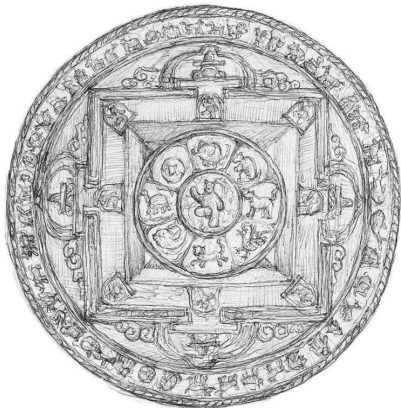


The Octagon – 팔각대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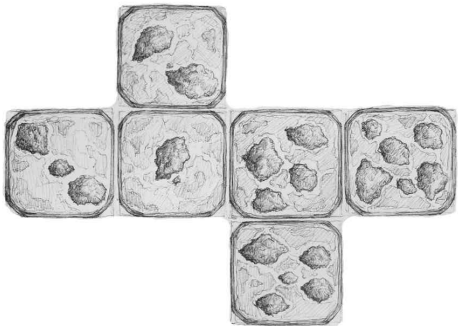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4500 x 4500 x 1700mm / 2015



The Octagon – 팔각대륙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4500 x 4500 x 1700mm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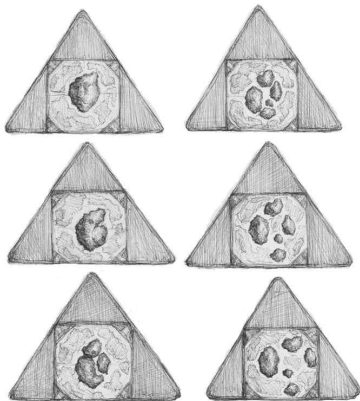


The Circle - 둥그런 우주
fabric, quilt, cubic, / 3000 x 3000mm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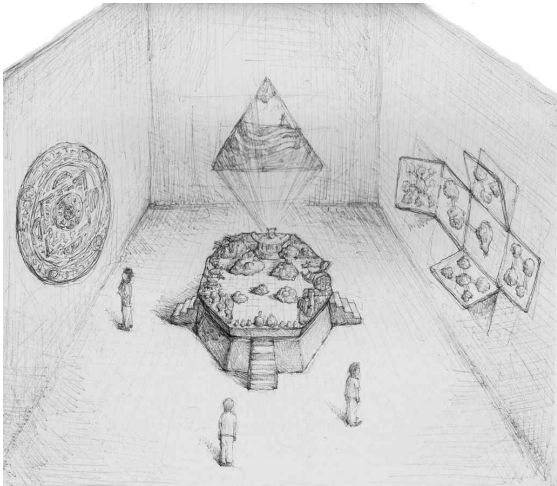


The Cube - 네모난 지구

stainless steel, copper, mixed media / 3000 x 2300mm / 2015



The Beginning of the World – 세상의 시작
3D Max, drawing / 3mins 50secs / 2015



Directed Diorama- 연출된 디오라마
Installation view



The Lost Island
Installat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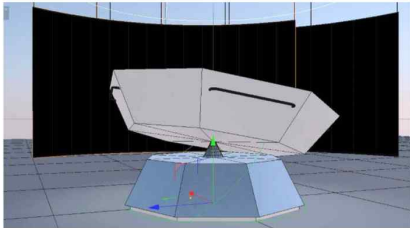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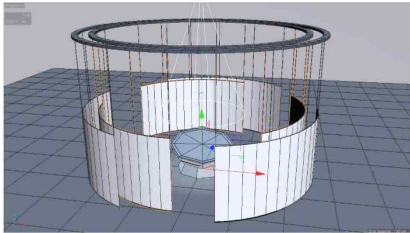


Survivors of The Laft of Medusa
stainless steel, copper / 4700 x 6500 x 5500mm / 2016



The Octagon x Cosmos
stainless steel, copper / 8000 x 8000 x 3000mm / 2018

작품 구상도



우주 속 디오라마의 작품을 관람하며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형의 공간을 만들어 플로팅 홀로그램 기법을 이용해 영상을 원통형 사막에 투사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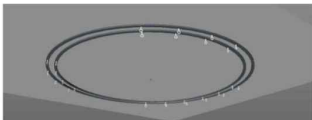
제작 협조사항

김성수작가 : 작품을 비출 수 있는 밝은 스팟라이트(천장에서 떨어져 디오라마 작품을 비출)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모델명과 밝기는 협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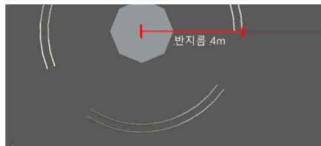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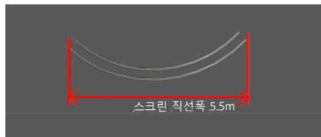
김용찬 작가 : 원동형 홀로그램을 천장에 매달 수 있는 원형의 천장 2중 구조물(지름 8m 원형과, 지름 7m60cm)

원형의 트러스에는 원동형 홀로그램을 매달 수 있는 원형 고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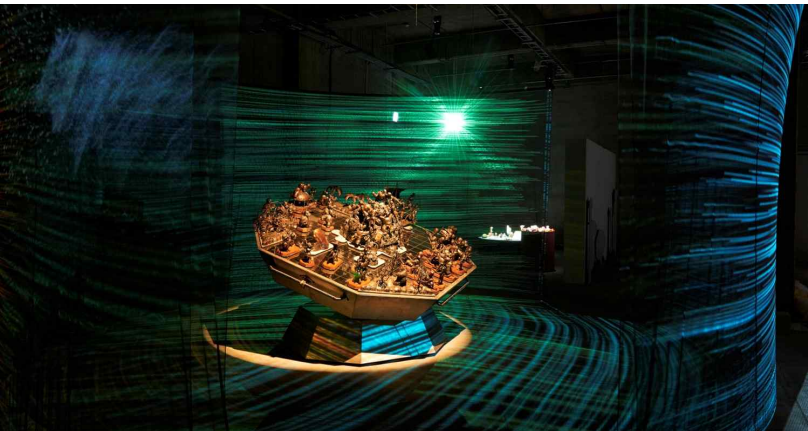


작품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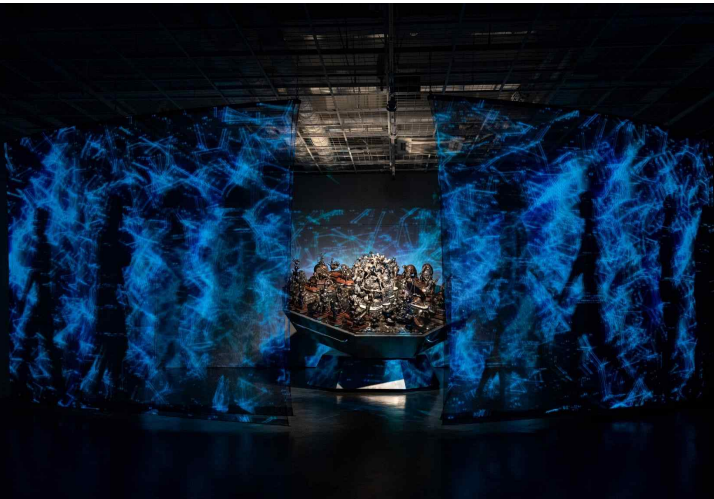
원동형 지름	8m	스크린 직선길이	5.5m
스크린 높이	3.5m	입구 직선길이	2.5m



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g4vwdCj3rL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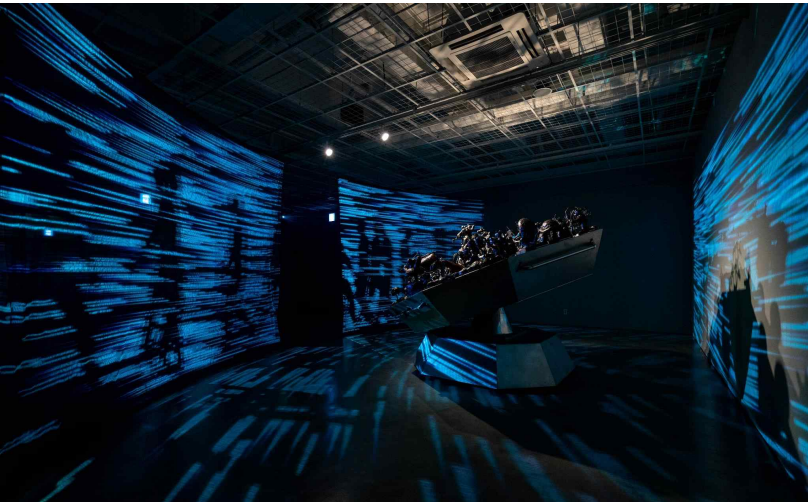


The Octagon x Cosmos 1.0
stainless steel, copper / 8000 x 8000 x 3000mm / 프로젝션 맵핑. 김용찬 / 2017



The Octagon x Cosmos 2.0

stainless steel, copper, projection mapping by 김용찬 / 8000 x 8000 x 3000mm / 2018



The Octagon x Cosmos 2.0

stainless steel, copper, projection mapping by 김용찬 / 8000 x 8000 x 3000mm / 2018

상자속의 놀이공원

2013-2020

놀이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잠시 현실의 끈을 놓고 비현실과 상상의 세계로의 입장을 행한다. 놀이공원은 어떠한 특정한 공간을 환상의 세계나 비현실적인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사람들을 맞이하며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상상의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시간이 지나 놀이공원은 나의 창작세계를 확장시켜주는 무대이자 장치로 다가왔다. 현실적인 의미의 단순한 소통의 개념보다 초월적 성격을 지닌 일종의 길로써 개인의 신화를 대입시키는 은유적 공간이 되었다.

Amusement Park in Box 2014

The moment people enter the amusement park, they let go of reality for a moment and enter the world of unreality and imagination. An amusement park sets up a certain space as a fantasy world or an unrealistic object, greets people, and makes everyone become the main character of the imaginary world at least for the moment they exist in the space. Over time, the amusement park came to me as a stage and device that expanded my creative world. It has become a metaphorical space for substituting individual mythology as a kind of path with a transcendental character rather than a simple concept of communication in a realistic sense.



Amusement Park in Box
Installation view / 2014



Boxkeeper

70 x 70 x 22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Boxkeeper

70 x 70 x 22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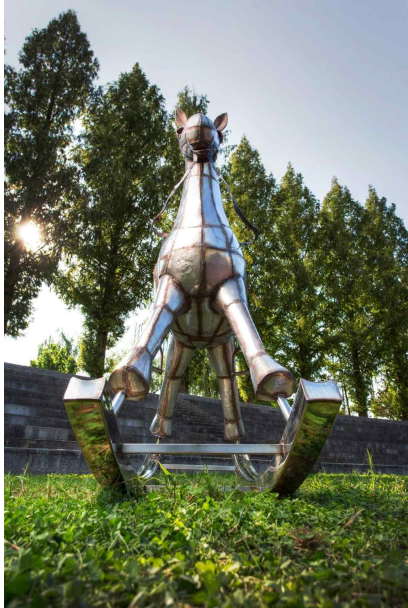
Racehorse

70 x 220 x 20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Racehorse

70 x 220 x 200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Timetraveler

300 x 450 x 32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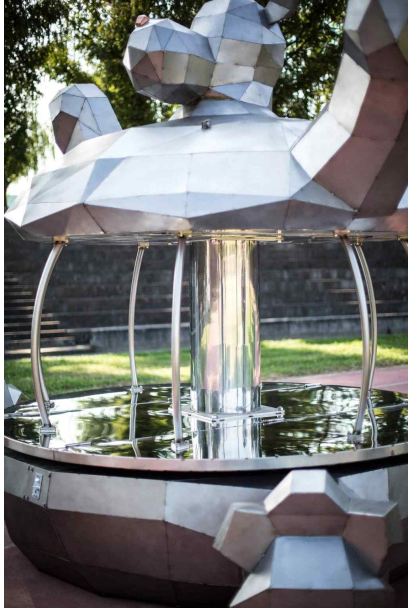
탐승영상링크 : <https://vimeo.com/187133583>



Timetraveler

300 x 450 x 32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Timetraveler
300 x 450 x 32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Moonwalker

300 x 200 x 24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Moonwalker

300 x 200 x 24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Sculptor's desk

40 x 60 x 160cm / stainless steel, stand light, LED / 2014

3D영상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xcwiRtn6s_s&t=34s

A 3D rendered box, likely a product or promotional item. The box is dark-colored with a lighter-colored base. The top surface of the box features the text "Amusement Park in Box" in a stylized, glowing font. The base of the box has some small, illegible text or markings.

Amusement Park
in 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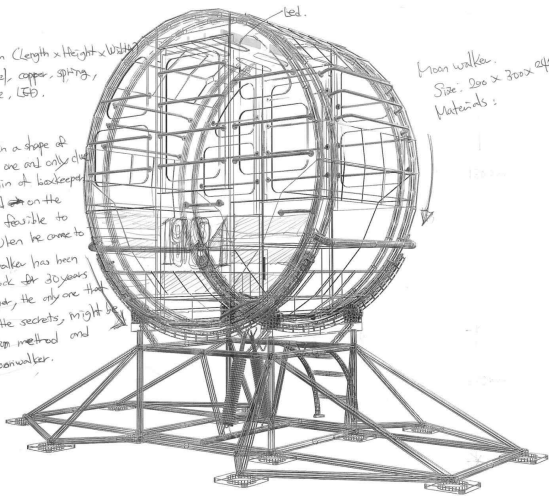
- Moon walker -

Size: $200 \times 300 \times 245$ cm (Length x Height x Width)

Materials: stainless steel, copper, spring, polycarbonate, LED.

Weight: 200kg.

Contents: This structure in a shape of Lunar Lander is the one and only clue of representing the origin of bookkeeper. The number 1987 octadecad on the moonwalker makes it feasible to ~~test~~ pinpoint the year when he came to the earth. This moonwalker has been locked with a firm lock for 30 years after he came. Bookkeeper, the only one that knows ~~all~~ about all the secrets, might be informed of operation method and functions of this moonwalker.



Moon walker.
Size: $200 \times 300 \times 245$ cm
Materials:

2014. 4. 18 Fri Kim Sung Soo

- Time traveler -

Size: 300 x 450 x 320 (Length x Width x Height)

Materials: stainless steel, copper, motor, coin s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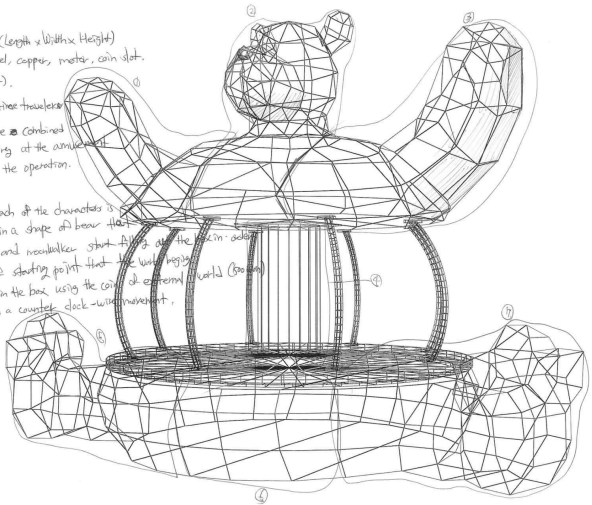
Weight: 60kg (about).

Contents: 9 pieces of time travelers

that were dispersed are combined at 9 o'clock every morning at the amusement park in Box starting the operation.

The box containing each of the characters is called out in the ship in a shape of bear that
 brakereaper, machine and moonwalker start filling at the box in order.

It serves as a hole of starting point that the work begins at the amusement park in the box using the coin of external world (room) for taking a time in a counter clock-wise movement.



2014.3.2 Sun. Kim
 .time & .

Boxkeeper

- Boxkeeper -

Size: 70x70x220cm (Length x Width x He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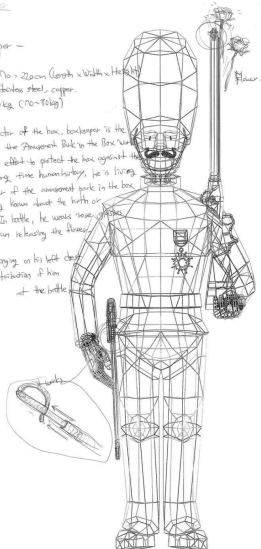
Materials: Stainless steel, copper.

Weight: 20 kg (70-70kg)

Contents:

As a protector of the box, boxkeeper is the character in the Amusement Park in the Box world. Ensuring an effort to protect the box against the war of a long time human history, he is living as a manager of the amusement park in the box without being known about the birth or background. In battle, he wears these glasses using the gun releasing the flower.

The model hanging on his left chest says the contribution of him at the battle.



Blueprint-4 / Pen on paper / 2014

- Racehors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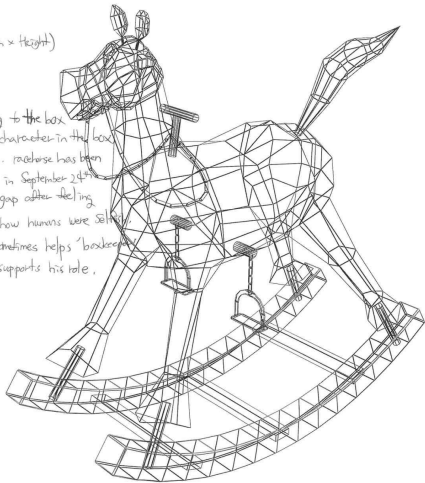
Size: 70 x 220 x 200cm (Length x Width x Height)

Materials: Stainless steel, copper

Weight: 80 kg (80-100kg)

Contents:

Racehorse is the only character coming to the box from the human world among all the character in the box. With the fastest feet in the human world, racehorse has been much honored but came to the box in September 24th every year when the box shows the gap after feeling how difficult it was to train and how humans were selfish. After coming to the box, racehorse sometimes helps 'boxkeeper' for the fast movement and also supports his role.



2014. 2. 20 Thu.
Kim Sung Soo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4



Gana Insa Art Center / Seoul
Installation View 2014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2012-2013

나는 어렸을 적부터 동화속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았고 혼자 책을 읽고 상상하는 것을 즐겨했던 터라 동화책은 현실과 다른 세계로 가는 출입구였으며 그 안에 나만의 놀이터를 만들고 꿈을 꾸는 것은 하루를 보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성인이 되어 지금까지도 나는 동화를 읽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무궁무진한 상상의 세계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의 발달은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관계나 이야기 전개에 당위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자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려 한다. 동화는 점점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어른들의 세상에선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꿈을 꾸지 못한 파랑새는 날수 없듯이 사람들의 사고 또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축소되고 형식화 되어간다. 꿈을 꾸는 행위는 모든 행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각각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꿈의 씨앗을 찾길 바라본다.

The Story of Nothing 2013

I have had a longing for the world of fairy tales, at least since childhood. Since I was not less active and enjoyed reading and imagining books by myself, fairy tales were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do during the day. As an adult now, I read fairy tales, but the infinite world of imagination that the Englishman grew up with feels different. A fairy tale of rational thinking while naturally complex modern relationships makes me doubt the legitimacy when talking with characters appearing in fairy tales. Why should it be? I keep trying to develop the story logically by asking questions about it. Fairy tales are gradually becoming the exclusive property of children, and in the world of adults, they become 'nothing stories'. Just as a blue bird without a dream cannot fly, people's thoughts are also reduced and formalized within a limited range. The act of dreaming can be the starting point of all actions. I hope to find the seeds of meaningful dreams that exist in each story that seems to be nothing.



The Story of Nothing
Installation view / 2013

Puss in Boots

75 x 90 x 146cm / stainless steel, copper, glass / 2013





Puss in Boots

75 x 90 x 146cm / stainless steel, copper, glass / 2013



Little red riding hood

96 x 160 x 167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Little red riding hood
96 x 160 x 167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The town musician of Bremen
120 x 170 x 24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The town musician of Bremen
120 x 170 x 24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The tree

91 x 45 x 51cm / stainless steel, steel / 2013

Pippi Longstocking
44 x 30 x 7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The Puppy / 28 x 27 x 2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The Puppy II / 19 x 19 x 16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3

Rodeo
28 x 53 x 55cm / stainless steel, copper / 2014



제자리에

2010-2011

유년기에 직,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일상의 파편을 작은 낙서로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재현해나가거나 영감의 화석들을 발굴해나가는 것이 작업의 큰 방향이다. 이번 '제자리에' 라는 소재를 달고 시작한 연작들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 과거의 흔적에서 영감을 얻었다. 제각기 모습을 달리한 동물이란 소재는 혼자 시간을 보낼 때면 거대한 화두로 다가왔고 실제로 만나볼 수 없었던 동물들은 환상 속에만 존재해온 상상의 대상이었다. 낙서나 그림일기를 통해서 나만의 동물형상을 표현 해내는 것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우연찮게 작업실 한쪽 구석에 버려져 있던 철 조각들을 하나하나 자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하나의 형상을 형성해 나갔다. 고양이가 되었으며 때론 동물형상 속에 작은 마을이 되기도 했다. 구름과 달이 되기도 하였고 우주왕복선과 미사일이 되기도 했다. 어렸을 적 일기장의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 즈음에서 형성된 낙서들은 나름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기억의 저편에 존재하는 여러 흔적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The main direction of my work is to record the fragments of daily life that I directly and indirectly experienced in my childhood as small scribbles, and through them, reproduce the story I have or excavate fossils of inspiration. The series, which started with the subject matter of 'in place' this time, were inspired by the traces of the past that can be overlooked inadvertently. The material of animals with different appearances came to be a huge topic when spending time alone, and animals that could not be met in reality were objects of imagination that existed only in fantasy. It has become a daily routine to express my own animal shape through doodles or drawing diaries. I started cutting the pieces of iron that were accidentally abandoned in a corner of the studio one by one. They formed a single shape. It became a cat, and sometimes it became a small village in the form of an animal. It became clouds and the moon, and it also became space shuttles and missiles. The scribbles formed in the middle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in the diary of childhood are finding their own place, and various traces that exist on the other side of memory are waiting for me.



Woojin Culture Space / Jeon-Ju
Installation View 2011

Moonbug
45 x 25 x 70cm / Steel, Copper / 2010



The Village of Bandalgom
119 x 84 x 212cm / Steel / 2010





The Village of Bandalgom
119 x 84 x 212cm / Steel / 2010



George's Island

120 x 140 x 169cm / Steel, Copper / 2010



George's Island
120 x 140 x 169cm / Steel, Copper / 2010



The Planet of Armadillo
120 x 140 x 155cm / Steel / 2011





The Planet of Armadillo
120 x 140 x 155cm / Steel / 2011

The Dreaming Whale
178 x 280 x 220cm / Stainless steel /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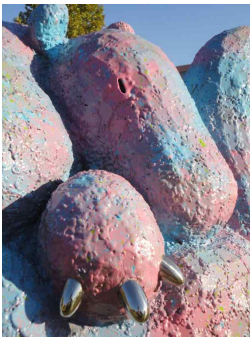
The Dreaming Whale

178 x 280 x 220cm / Stainless steel / 2011





The Planet of Armadillo II
80 x 80 x 80cm / Stainless steel / 2011



The Planet of Armadillo II
80 x 80 x 80cm / Stainless steel / 2011



Three Friends

Cloud Elephant / 30 x 20 x 30cm / Stainless steel / 2011

Vanilla Bear / 22 x 13 x 34cm / Stainless steel / 2011

Moss Whale / 30 x 20 x 27cm / Stainless steel / 2011



학력

전북대학교 미술학 박사 (조소전공)

주요 개인전

- 2024 공간시은 김성수 초대전 <<조각가의 정원>> (공간시은, 전주)
- 2023 한국전력공사 선정작가전 <<Downtown Episode>> (한전갤러리/서울)
- 2023 GS건설 김성수 초대전 <<Nostalgic Fantasy>> (GS건설 엘리시안 강촌, 춘천)
- 2023 김성수 개인전 <<조각가의 아틀리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서울)
- 2022 김성수 개인전 <<패신저스_움직이는 장>> (gallery 숲, 전주)
- 2020 김성수 개인전 <<패신저스_폴리스맨 vs 울프라이더>> (누에아트홀, 완주)
- 2020 김성수 개인전 <<패신저스_갱스터 & 플로리스트>> (팔복예술공장, 전주)
- 2017 김성수 개인전 <<패신저스_Chapter I>> (gallery 숲, 전주)
- 2016 김성수 개인전 <<연출된 디오라마>> (Art Mora Gallery, 뉴욕)
- 2015 삼성래미안 김성수 초대전 <<Memorial Vintage>> (삼성래미안갤러리, 서울)
- 2014 김성수 개인전 <<상자속의 놀이공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서울)
- 2013 김성수 개인전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교동미술관, 전주)
- 2011 김성수 개인전 <<제자리에>> (우진문화공간, 전주)

국제전, 비엔날레

-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와동분교, 홍천)
- 2021 여수국제미술제 (여수엑스포컨벤션/여수)
- 2017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옛연초제조창, 청주)
- 2013 평창국제비엔날레 (알펜시아리조트, 평창)

수상, 레지던시

-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중앙일보 문화사업부)
- 한전아트센터 Art for Green 선정작가 (한국전력공사)
- 포스코 미술관 The Great Artist 선정작가 (POSCO)
-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선정작가 (광주시립미술관)
- 전북도립미술관 청년미술가 선정작가 (전북도립미술관)
- GIAF 아시아현대미술청년작가공모전 국회의장상 (대한민국국회)
-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3기 정기 입주작가 (전주문화재단)

주요 단체전 (2015-현재)

- 2023 대만-한국 국제교류전 (가오슝시립문화센터/대만 가오슝)
- 2023 모뉴멘탈 (뮤지엄헤드/서울)
- 2023 교동미술상 수상작가전 (교동미술관/전주)
- 2022 청년미술 프로젝트 '경계점' (엑스코/대구)
- 2022 통영미술제 - Break Time (통영해양공원/통영)
- 2022 S 라운지 x 일상다반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전주)
- 2022 한강프로젝트 '낙락유람' (독섬한강공원/서울)
- 2022 흥천동심조각전 (흥천미술관/흥천)
- 2021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예술의전당/서울)
- 2021 아트광주21 기획초대전 (김대중컨벤션/광주)
- 2021 한강 흥프로젝트 야외조각전 (여의도한강공원/서울)
- 2021 팔복예술공장 정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팔복예술공장/전주)
- 2019 Beyond The Line 기획전 (코갤러리/독일 베를린)
- 2019 한중교류전 (정주대학교미술관/중국 정주시)
- 2018 광주시립 하정웅 청년작가초대전 (광주시립 하정웅미술관/광주)
- 2018 변방의 파토스 (전북도립미술관/전주)
- 2018 전북도립미술관 청년미술가 선정작가전 (전북도립미술관/전주)
- 2018 평창 문화올림픽 전야제 파이어아트페스타 (경포대해변/강릉)
- 2017 로터스 랜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광주)
- 2017 메탈리스트 (익산예술의전당/익산, 경주예술의전당/경주)
- 2017 꿈나무 울타리 (정읍시립미술관/정읍)
- 2016 쇼콘 (오산시립미술관/오산)
- 2016 서른들의 다른 이야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전주)
- 2016 Retro Scene 김성수, 이상원, 정재호 3인전 (스페이스 케이/과천)
- 2015 The Great Artist 선정작가전 (포스코미술관/서울)
- 2015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예술의 전당/서울)
- 2015 어린이를 위한 성찬展 (전북도립미술관/전주)

Web. www.kimsungsooart.com

Email. kimsungsooart@gmail.com

Instagram. www.instagram.com/sungsoodominickim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h.D. in Fine Arts)

Solo Exhibition

2024 **Sculptor's Garden** (Space Sieon, Jeon-ju)

2023 **Downtown Episode** (KEPCO Art Center, Seoul)

2023 **Nostalgic Fantasy** (GS E&C Elysian Gangchon, Chuncheon)

2023 **Sculptor's Atelier** (GyoDong Museum of Art, Jeon-ju / Insa Art Center, Seoul)

2022 **Passengers_Moving Scene** (gallery Sum, Jeon-ju)

2020 **Passengers_Policeman vs Wolfrider** (Nu-E Arthall, Wan-ju)

2020 **Passengers_Gangster & Florist** (Palbok Art Factory, Jeon-ju)

2017 **The Passengers-Part I** (gallery Sum, Jeon-ju)

2016 **Directed Diorama** (Art Mora Gallery, New York, NY)

2015 **Memorial Vintage** (Samsumg Raemian Gallery, Seoul)

2014 **Amusement Park in Box** (Woojin Culture Space, Jeon-ju / Insa Art Center, Seoul)

2013 **The Story of Nothing** (GyoDong Museum of Art, Jeon-ju)

2011 **On Your Mark** (Woojin Culture Space, Jeon-ju)

Biennale

2021 **Gangwon Triennale** (Wadong/Hongchun)

2021 **Yeosu Internatinal Art Festival** (Yeosu Expo Convention/Yeosu)

2017 **Cheongju Craft Biennale** (The Old Tobacco Processing Plant/Cheongju)

2013 **Pyungchang Biennale** (Alpensia Resort/Pyungchang)

Awards, Residency

Joong-Ang Art Prize Selected Artist (Korea Joon-Ang Daily)

KEPCO Art Center Art for Green Selected Artis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Posco Art Museum Selected Artist (Posco.co)

Ha Jung Woong Selected Artist (Gwang ju Museum of Art)

Jeon-buk Provincial Art Museum Selected Artist (Jeon-buk Provincial Art Museum)

GIAF Asia Modern Art Prize winner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Pal-Bok Art Factory 3rd Residency (Jeonju Cultural Foundation)

Group Exhibition (2015-2023)

- 2023 Taiwan-Korea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Kaohsiung City Cultural Center/Kaohsiung, Taiwan)
- 2023 Monumental** (Museumhead/Seoul)
- 2023 Gyodong Art Award Winner Exhibition** (GyoDong Museum of Art, Jeon-ju)
- 2022 Youth Art Project 'Boundary Point'** (Exco/Daegu)
- 2022 Tongyeong Art Festival 'Break Time'** (Tongyeong marine park/Tongyeong)
- 2022 S Lounge x Everyday life** (Korea Sori Culture Center/Jeonju)
- 2022 Hangang Project** (Hangang Park/Seoul)
- 2022 Hongcheon Sculpture Exhibition** (Hongcheon Museum of Art/Hongcheon)
- 2021 Seoul International Sculpture Festa** (Seoul Arts Center/Seoul)
- 2021 ARTGWANGJU21** (KIMDAEJUNG Convention/Gwangju)
- 2021 K-Sculptre Outdoor Exhibition** (Han-River Park/Seoul)
- 2020 Outsider Palbok 3rd Residency Preview** (Pal-Bok Art Factory/Jeonju)
- 2019 Beyond The Line** (Co Gallery/Berlin Germany)
- 2019 Korea-China Culture Exchange Exhibition** (Jungju University/Jungju China)
- 2018 Ha, Jung-Woong Young Fine Art Award** (Ha Jung Woong Art Museum/Gwangju)
- 2018 Paths of Perimeter** (Jeon-buk Provincial Art Museum)
- 2018 Jeon-buk Provincial Art Museum Selected Artist** (Jeon-buk Provincial Art Museum)
- 2018 Pyung Chang Culture Olympic Fire Art Festa** (Gyung Po beach/Gangneung)
- 2017 Lotus Land** (Asia Culture Center/Gwangju)
- 2017 Metalists** (Iksan Arts Center/Iksan, Gyeongju Arts Center/Gyeongju)
- 2017 The Fence of Dream Tree** (Jeongeup Museum of Art/Jeongeup)
- 2016 Showcon** (Osan Culture Factory/Osan)
- 2016 The Story of 30s** (Sori Arts Center Jeollabuk-do/Jeonju)
- 2016 Retro Scene** (Space K/Gwacheon)
- 2015 The Great Artist Selected Artists Exhibition** (Posco Art Museum/Seoul)
- 2015 Joong-Ang Art Prize Selected Artist Exhibition** (Seoul Arts Center/Seoul)
- 2015 The Sacrament for Child** (Jeonbuk Museum of Art/Wanju)

Web. www.kimsungsooart.com

Email. kimsungsooart@gmail.com

Instagram. www.instagram.com/sungsoodominickim